

2014

연구보고서-20

I S S U E P A P E R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해 노후설계 역량강화

수행과제명 •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II)

: 노후설계를 통한 역량강화

과제책임자 • 박성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해 노후설계 역량강화*

수행 과제명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
(Ⅱ): 노후설계를 통한 역량강화

과제책임자 박성정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4

e-mail: sjpark@kwidimail.re.kr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들이 노후설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고령 여성들의 노후설계서비스 참여 요구와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들이 노후설계를 통해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박성정·오은진·최인희·최윤정·장희영·박영란(2014).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Ⅱ): 노후설계를 통한 역량강화.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노년기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생산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노년을 앞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자 고민임.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교육, 은퇴준비교육 등이 있어 왔고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증대되어 왔음. 미리 노년을 준비함으로써 노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공감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임. 최근에는 정책적으로도 노후설계상담 및 교육 등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들이 노후설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이를 위해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고령 여성들의 노후설계서비스 참여 요구와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여성들이 노후설계를 통해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40대~60대 여성들의 노후준비 현황,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요구, 노후설계서비스 참여 경험 등을 조사 분석하였음.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여 유효설문이 된 수는 총 2,011명이며, 노후설계서비스 유경험자는 458명¹⁾임.

1) 노후준비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노후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1) 조사대상 중 300명까지는 할당표집하였음.

로 확인되어 40대~60대 여성들의 과반수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연령대별로는 50대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1.6%로 더 높으며,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불안도가 높게 나타남.

40대~60대 여성들은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비율이 52.8%에 그침. 노후준비정도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의 평균은 4점 만점 기준으로 2.9점인데 대인관계와 건강에 대한 평가는 평균 3.1점과 2.9점으로 대체로 괜찮다는 의견이지만 여가나 재무 부분은 평균 2.6점과 2.7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나 이 부분의 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4점 만점 척도에서 3.4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78.0%가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 40대~60대 여성들의 92.5%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잘 세우고 싶다고 응답했음.

노후준비에 대한 요구는 4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높았으나 노후준비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는 평균 2.5점으로 낮게 나타나, 노후준비 역량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40대~60대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9.0%에 그쳤음. 노후준비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61.6%가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도 13.4%가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노후준비를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는 비율은 65.9%, 노후준비를 위해 정보 습득,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비율은 68.8%, 노후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알고 싶다는 비율은 62.2%, 정부가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 비율은 79.0%로 40대~60대 여성의 2/3는 노후준비를 위해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요구가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 기관은 지역의 교육·문화·복지·행정시설이 5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교육 및 가족 관련기관 26.2%, 대학 4.5%의 순으로 근거리 지역시설을 선호하고 있음. 노후준비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가 40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가 30.8%여서, 일찍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음.

전반적으로 학력, 소득, 연금액, 노후설계서비스 경험 등이 노후준비도, 노후준비 역량, 노후준비 요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정책개입을 통해 여성의 연금 가입과 가입액을 늘리고, 노후설계서비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2) 노후설계서비스 참여 경험

노후준비 및 설계서비스 이용 여성의 90%는 노후설계 진단이나 상담을 받았으며, 노후설계교육 참여 비율은 56.3%로 진단과 상담에 그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노후설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33.1%는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29.2%는 노후설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노후준비 및 설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

노후설계서비스에 참여하게 된 주된 동기는 주위의 권유(75.8%),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46.9%), 활기찬 노년을 준비(42.8%)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후설계서비스를 받은 기관은 보험회사와 같은 기업이 76.2%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 지역 내 교육·문화·복지·행정시설(15.7%), 여성·가족 관련기관(8.7%) 순임. 참여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노후설계 진단 및 상담 부분과 노후설계교육을 나누어 살펴보면, 노후설계 진단 및 상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8%가, 노후설계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8%가 만족도를 보여 노후설계교육의 만족도가 일반 상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노후설계교육의 참여 시간으로는 1일 이상 1주일 미만이 46.9%, 1일 미만이 36.4%로 참여자의 절대 다수가 1주일 미만의 단기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후설계교육에 참여한 동기는 상당수가 노후대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70.9%)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이나 일로 연계(13.4%)가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참여한 노후설계교육이 실제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노후대비에 필요한 정보 획득(3.2점), 노후에 대한 자신감 향상(3.0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구체적인 노후설계 가능(2.9점), 노후의 불안감 감소(2.8점), 노후대비 역량 강화(2.8점)는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남.

노후설계교육이 노후준비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자기평가를 하도록 한 결과, 재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가 평균 2.9점으로 가장 높고, 건강, 대인관계, 노화 이해 부문이 각각 평균 2.8점, 일, 여가, 자기계발이 평균 2.7점, 사회공헌이 평균 2.6점으로 가장 낮았음. 재무 관련 역량 점수가 높다는 것은 기존의 노후설계교육이 국민연금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주로 시행해왔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노후설계교육이 상당히 재무 중심으로 치우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노후설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고령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참여 동기 및 경험, 만족도 및 정책지원 요구를 파악하였음. 면담 결과, 중고령 여성들은 자기계발, 사회참여, 취업 등 다양한 기대를 안고 노후설계서비스에 참여했고, 프로그램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동기부여’를 해주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

3 정책제언

노후설계는 삶의 전환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노후준비에 의미가 큼. 중장년까지의 삶이 대체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중추 연령층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반면, 노년기는 사회에서 역할이 줄어들고 심지어 밀려나기까지 하는 시기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를 앞두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음. 본인이나 가족의 은퇴에 대비해 경제적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년을 어떻게 활기차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생활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절실히 필요함.

이러한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기존에 금융기관의 노후 재무설계와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노후준비교육이 있어 왔는데, 근래 정부도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해가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과 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에게 널리 인지되고 있지 못하고 노후진단과 상담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은퇴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 베이비부머와 노년층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후대비에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여성들의 활기찬 삶을 위한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조사 결과, 전체적인 노후준비 상태를 양호와 미흡으로 나누었을 때 노후설계서비스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를 받는 것이 노후준비 및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함. 기존의 노후준비 및 설계를 지원하는 정책서비스는 서비스 절차 면에서는 진단과 상담, 교육, 사후관리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 면에서는 재무, 건강, 여가, 학습,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등의 노후준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의 정책과제도 이러한 서비스 절차와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함.

제안1) 자기주도적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확대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40대~60대 여성들은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97.0%로 절대적으로 높고, 여성의 78.0%가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의지도 높지만, 노후준비 역량은 낮아 갭이 큼. 이에 노후에 대한 불안(59.7%)이 크며, 노후준비 요구가 높게 나타나므로, 노후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함.

40대~60대 여성들의 92.5%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잘 세우고 싶다고 답하여, 노후설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노후준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단기간의 정책 개입으로 향상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노후설계서비스 경험과 노후준비의 긍정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노후준비를 위한 체계적 설계서비스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노후준비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조사 결과, 노후준비 및 설계서비스 경험집단은 노후준비 인식, 노후준비도, 노후준비 역량, 생활만족도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무경험 집단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더 많은 여성들이 노후준비 및 설계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가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9.0%에 달함.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을 희망하는 비율은 65.9%, 정보 습득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은 68.8%인데, 유료로 참여의사가 있는 비율은 절반(49.9%) 정도임.

노후준비 진단, 상담, 노후설계교육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홍보 강화, 무료 프로그램 확대, 지역기반 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함.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젊은 시기부터 생애설계교육을 학교, 직장 등에서 실시하여 노후를 미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 제공

노후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61.6%가 경제적 여유 부족을, 14.1%가 시간적 여유 부족을, 13.4%가 지식과 정보의 부족을 들고 있음. 경제적인 노후대비 정보를 알고 있다는 비율이 59.1%에 그치고 있으며, 노후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적 없는 응답자들 중 33.1%는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하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노후준비·설계교육 참여 여성들의 70.9%는 참여 동기가 “노후대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하여 우선 정책적 개입을 통해 지식과 정보의 부족을 해소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지식과 정보는 노후설계교육을 통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정보지 발행이나 광고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임.

- 여성들을 위한 노후준비정보지 개발 및 보급
- 노후준비 정보처를 소개하는 홍보, 광고
- 노후준비 정보교육

2) 저소득, 저학력 여성들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와 무료프로그램 제공

조사 결과,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낮고 불안도는 높음. 노후준비 필요성이 제일 큰 집단이지만, 현실적으로 준비할 시간이나 여건이 안되는 집단이므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 학력과 소득이 높은 집단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도 높고, 역량도 더 높음. 소득과 학력이 서로 상관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되는데, 문제는 저소득 가정의 노후준비가 상당히 빈약하다는 점임. 현실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후준비 역량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후준비와 관련한 정보와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은 정부가 정

책을 확산하더라도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저소득층 대상의 적극적인 outreach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대비 정보와 방법을 알고 있는 비율이 낮아, 노후대비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성 및 역량에 문제가 있음. 저소득·저학력 여성들의 노후준비 역량을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노후준비 인식과 정보 인지 수준의 향상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 제공, 전화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취약한 여성들에게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 노후생활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무료 프로그램 제공
- 방문상담과 outreach 서비스

3) 지역기반 시설 및 여성·가족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40대~6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기관은 지역의 교육·문화·복지·행정시설이 5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교육 및 가족 관련기관 26.2%, 대학(평생교육원 등) 4.5%, 취업지원 기관 4.5%의 순임. 보건복지부 노후설계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연금공단 관련기관에 대한 선호도는 2.2%에 불과하여 연금공단 중심의 기존 서비스로는 여성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을 느낀 경우, 기관과의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나, 여성들이 선호하는 거주지 근거리 지역시설이나 여성·가족 관련시설에서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 서비스 경험여성들은 보험회사와 같은 기업이 76.2%에서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과 선호 간에 차이가 큼. 연령이 높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지역시설을 선호하며,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교육 및 가족관련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

또한 정부의 노후설계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민간서비스가 중심

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접근기회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파악됨. 참여 경험자 소득이 높을수록 기업에서 받은 비율이 높아 민간기업 위주의 서비스는 저소득층에게 접근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여성회관, 문화회관,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후준비 및 설계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노후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원화가 필요하며, 여성의 선호가 높은 지역사회 시설과 여성·가족 관련기관에서 서비스 확대가 바람직함.

- 주민자치센터, 문화회관, 복지관 등 지역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
- 여성회관, 여성농업인센터 등 여성시설에서 교육 및 서비스

4) 4050 노후설계상담 및 교육 기회 확대

대체로 노후의 시작은 평균 64.6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됨.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은퇴연령을 50대 중반으로 생각한다면 약 10년간의 갭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가능한 젊은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매우 시급함.

40대~60대 여성들은 노후준비의 가장 적절한 시기를 40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음. 50대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30.8%인데, 50대 응답자도 40대를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40대부터는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노후설계서비스의 대상은 40대~50대를 주 타겟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노후설계 시기가 늦어지면, 취업활동을 준비하는 데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면담에서도 50대 여성들은 50대~60대에도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40대에 노후설계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하였음. 따라서 40대부터 노후준비를 하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늦어도 50대에는 노후진단과 상담,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을 통

해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공공 노후설계교육 및 상담서비스에 40대 참여율 제고
- 학부모 대상 노후설계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재직여성 노후설계상담 및 교육기회

제안2)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노후설계진단 및 상담 만족도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왔으나 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노후설계진단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지역에서 필요한 맞춤형 노후설계진단과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현재 노후설계진단 및 상담이 상당부분 도시에서 임금근로자로 오래 종사했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온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일 수 있음.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상담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야 함. 또한 저학력여성들에게는 노후준비 진단도구의 이해와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 수준과 편의성을 고려한 진단도구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는 기 개발된 노후준비지표와 도구로 노후준비도를 진단하고 상담을 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지역기반 시설이나 여성·가족 관련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각 기관들이 노후준비 진단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갖추고 있기는 어려움. 현재 기관이 요청하면 연금공단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주기도 하는데,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업을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공단에서 개별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진단도구를 활용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음.

- 저학력여성들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 지역시설 관계자 상담역량 강화 교육
- 연금공단 전문인력 파견서비스 확대
- 농어촌지역 여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제안3) 취약한 역량개발을 위한 노후설계교육프로그램 확대

노후설계서비스 이용 여성 중 진단 및 상담을 받은 경우는 90.0%에 달하지만, 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56.3%로 진단과 상담에 비해 교육기회는 저조한 것으로 보임. 노후준비를 위한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노후준비·설계교육 참여 여성들은 교육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감 향상, 불안 감소, 정보 습득, 역량 강화, 구체적인 노후설계에 대체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상담에서 그치기보다 교육까지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68.8%로 높지만, 현재는 진단 수준에서 그치는 비율이 더 많아 교육기회 확대가 요구됨.

여성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경제적 노후대비 정보 59.0%, 일을 할 수 있는 정보 43.3%, 건강관리 정보 55.9%, 노화과정과 특징 이해 52.8%, 대인관계 방법 67.1%,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역량 41.6%, 봉사활동 정보 40.7%, 여가정보 44.6% 수준으로 노후준비 정보와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음. 그리고 재무 정보에 비해 학습, 일, 여가활동 준비를 위한 역량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활동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노후준비에 관한 요구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96.0%, 일을 하기 위한 준비 84.6%, 건강 95.3%, 여가 93.2%, 자기계발 85.1%, 봉사활동 71.8%, 가족관계 94.3%, 대인관계 93.6% 등으로 노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비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이나 연금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무준비에 치우치기 쉬우므로, 균형적인 삶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함.

노후설계교육 영역은 요구가 높은 내용과 보유 역량이 낮은 내용을 고려해야 함. 요구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 주제는 학습, 일, 여가 영역인 것으로 나타남. 학습, 일, 여가 등 낮은 역량을 포함하여 활기찬 노후의 삶을 위한 균형있는 역량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1) 학습을 위한 평생교육 정보 활용 역량 강화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모든 다른 영역의 정보를 습득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음. 정보화 사회에서 성인의 중요한 학습역량은,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정보의 소스를 찾을 수 있고,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임.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편임. 학습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해 및 정보문해력이 있어야 함. 또한 평생교육기관들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함. 40대~60대 가운데는 온라인 정보를 찾기 어려운 중고령자들이 많음. 이들을 위해서는 컴퓨터, 인터넷, SNS 활용교육도 필요하고, 인쇄물로 된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취업기관에 관한 정보지 보급도 필요함.

- 정보문해교육
- 인터넷, SNS 활용교육
- 인쇄 정보지 제작, 배포

2) 일을 하기 위한 역량개발 및 취업 지원

노후에 일(소득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는 비율은 84.6%로 매우 높지만,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43.3%로 일 관련 역량이 매우 낮음. 연령이 낮고 학력과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젊은 고학력층들은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노후

준비·설계교육 참여 여성 중 교육 후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서비스를 원하는 비율이 27.5%인데, 특히 대졸 이상은 31.3%가 희망하고 있음. 노후 설계교육 참여자 중 일 관련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58.5%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임. 노후설계교육은 노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직업역량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의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로 취업희망자 연계
- 노후설계교육 중 훈련, 고용기관 견학기회
- 직업체험

3)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 역량개발

40대~60대 여성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활동의 만족도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남. 건강 만족도 74.4%, 경제상태 만족도 53.3%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도는 49.5%로 가장 낮은 수준임. 노후 여가생활을 위해 여가활동 개발(54.1%), 방법 탐색(58.0%), 여건 마련(61.6%) 등을 준비한다는 비율이 54.1~61.6%에 불과하여, 다른 활동들을 위한 노후준비 실천정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즉, 다른 노후준비 역량에 비해 여가 역량이 낮은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중고령 여성들의 여가활동이 취약한 편이고 이는 노후의 빈약한 여가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비해 노후의 여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는 비율은 93.2%에 달해 요구가 매우 높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는 비율도 7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여가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 건강, 시간 등이 필수적이지만 여가 정보 접근 및 취미활동 개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참여, 대인관계 확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함. 노년기 여가활동을 위해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가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되어야 함.

- 여가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기관 연계
- 여성노인 1인가구를 위한 여가활동 설계 지원

제안4)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노후준비 및 설계교육을 받은 후 사후관리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설계교육 참여 여성들의 경우, 저학력층은 노후대비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는 비율이 대부분이지만, 대졸 이상 여성들은 교육 후 사회활동이나 일을 하기 위해 참여한 비율이 13.4%로 나타남. 노후준비·설계교육 참여 여성들의 52.3%는 수료 이후 아무런 후속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 이후 활동을 묻는 연락(상담)을 받은 비율은 28.3%, 필요한 정보나 기관을 안내받은 경우 14.0%, 활동처나 취업처를 소개받은 경우 8.5%로 후속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연락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낮게 나타남. 교육 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영역별 심화교육 39.1%, 일자리 정보 제공 27.5%, 다른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14.7%, 상담 14.0%, 동아리모임 1.9%로 다양한 후속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어 사후관리서비스의 구체적 모델을 정립하여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큼.

노후준비·설계교육이 참여자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자신감과 용기를 준다는 점들은 심층면담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다양한 삶의 영역과 활동들에 대해 정보를 주고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의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더 실제적인 정보와 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참여자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남. 이러한 요구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이어져야 할 것임.

일차적으로 교육제공 기관에서 후속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해주도록 해야 함. 기관 연계를 위해서는 미리 관련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동아리모임을 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

기주도적으로 그리고 힘을 합해 노후를 개척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아리활동 지원
- 지역별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활용
- 후속 상담관리
- 사후관리 매뉴얼 개발 및 담당자교육

제안5) 노후설계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 제고

노후설계서비스를 경험한 여성들의 노후준비 실천정도가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후설계서비스가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서비스 경험자들은 65.7%가 불만이 없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불만 가운데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에 대한 불만이 16.2%로 가장 많음. 40대는 18.3%가 서비스 전문성에 불만을 제기하였음.

또한 노후설계교육이 노후대비에 필요한 정보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노후설계나 노후대비에 필요한 역량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노후설계교육 참여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재무, 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도움이 된다’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따라서 실질적으로 노후설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임. 또한 참여대상의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강사의 질 제고 등 서비스 전문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노후준비·설계교육 참여 경험 여성들은 절반에 가까운 46.9%가 1일 이상~1주 미만, 36.4%가 1일 미만의 단기교육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 역량을 개발하기에는 미흡한 과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됨. 참여자 면담 결과,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중장기 교육에의 참여기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단기 입문과정과 전문과정의 병행
- 영역별 기본적인 공통 교육내용 개발
- 강사 발굴 및 교육을 통한 질 관리
- 다양한 성인교육방법의 활용
- 견학, 실습활동 강화

제안6) 성인지적 연금정책 및 여성 재무설계 서비스

조사 결과, 배우자나 자녀의 도움 없이도 여성 스스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9.7%에 그쳐서, 노후에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률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가구소득, 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에 따라 노후준비도에 상당히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소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40대~60대 여성들의 67.5%만이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가입 및 수령 비율이 높게 나타남. 또한 취업 여성(74.3%)이 비취업 여성(51.8%)보다 연금 가입 및 수령 비율이 더 높음. 40대~60대 여성들의 월평균 (예상) 연금 수령액은 평균 67.1만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유배우 여성일 경우 평균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았으며 학력 간,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를 통해 노후 재무설계와 연금 가입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지시킬 필요성이 큼. 여성들은 남성보다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취약하므로, 여성들이 많이 겪는 경력단절이나 높은 비정규직 취업률, 무급가족종사 등과 같은 경제활동 특성을 고려한 재무상담과 설계 등 성인지적 접근이 요구됨. 재무설계 교육내용에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에서도 여성들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서비

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또한 여성들이 연금사각지대에 30%이상 놓여있기 때문에 노후에 건강, 재무, 여가 등 연금제도를 통해 얻는 부가적인 서비스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연금제도에 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한다면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보편서비스화하는 등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여성을 위한 재무설계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 여성의 연금 가입률 및 액수 제고 방안

4 기대효과

- 성인지적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의 활기찬 노년을 준비
- 노후준비 진단과 상담을 통해 노후준비 인식 제고
- 노후설계교육을 통한 여성의 노후대비 역량 강화
- 사후관리를 통해 여성의 노후 사회참여 기회 지원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